

대입개편안 토론회...쏟아진 '송곳' 질문

시민참여단, 호남권 광주 토론회서 전문가들과 열변 수시 학생부 전형·수도권 지방대학 비교 등 '큰 관심'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학교 내신 줄 세우기를 심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도권 대학들의 교과·종합전형 모집비율이 어떻게 되고 지방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큰 방향을 결정할 공론화 시민참여단의 호남권 1차 속의 토론회가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대입 전반에 관한 질문들이 쇄도했다.

공론화 의제로 나온 4개의 개편안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 이전에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일부 질문은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시민참여단 일원으로 참석한 한 남성은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 내신 줄 세우기를 심화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며 단도직입적으로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광주 설원여고 서점권 교사는 “곤혹스러운 질문을 주셨다”며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교과전형의 경우 성적이 절대적인데 비해 종합전형은 성적뿐만 아니라 수업참여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반영되므로 성적의 영향이 교과전형보다는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한 참석자는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종합전형과 수능 선발비율이 높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지방과 다른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서 교사는 “광주전남 대학은 교과전형으로만 뽑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울과 수도권은 종합전형이 39% 교과전형은 13%”라며 “수도권 대학들은 상황에 따라 학생 선발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호남권 1차 속의 토론회가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시민참여단 호남권 참석 대상자 55명 중 50명이 참석했다.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듯 학생에서부터 노인까지 폭넓은 계층이 참여단에 포함됐다.

6개 조로 나눠 각 분임 테이블에 앉은 참여단은 현행 대입제도는 물론 오후에는 공론화 의제로 나온 4개의 개편안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자신의 의지로 참여한 만큼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고 있다”며 “정보가 부족한 점을 아쉬워하는 참여단도 있었다”고 전했다.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온·오프라인으로 관련 내용을 공부하고 대입 토론회 영상을 참고해 이달 27~29일 2차 속의 토론회를 연다.

두 차례 속의가 끝나면 공론화위는 대입제도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해 다음 달 초까지 그 결과를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나리오에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논의 결과는 다음 달 초 공개된다.
/이순로 기자 srlee@

오늘의 날씨

광주	☀️	24~35
나주	☀️	23~35
장성	☀️	22~33
담양	☀️	23~34
화순	☀️	23~35
영광	☀️	23~33
함평	☀️	24~35
목포	☀️	24~24
무안	☀️	24~33
영암	☀️	23~33
진도	☀️	23~32
신안	☀️	24~32
순천	☀️	25~35
광양	☀️	25~35
구례	☀️	24~35
곡성	☀️	23~35
완도	☀️	23~33
강진	☀️	23~33
장흥	☀️	23~33
해남	☀️	22~33
여수	☀️	25~32
보성	☀️	22~34

☀️ 해돋이 05:30 🌙 달뜨기 08:49
☁️ 해질 19:47 🌅 달지기 22:21

광주시, 결식우려 아동 1만5천명 지원

“급식소·음식점 점검 철저”

광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해 결식우려가 있는 돌봄이웃 아동 1만5천797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8월29일까지 급식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개 자치구에서 선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아동을 포함해 교사와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 학교 사회복지사 등이 추천한 총 1만5천797명이다.

광주시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 급식 전자카드를 지급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식당 861곳,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등 집단 급식시설 4곳, 지역아동센터 306곳, 식품권 5곳 등 모두 1천176곳의 급식제공 기관을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김애리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15일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해 급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급식소와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점검도 철저히 해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검찰 사법농단 ‘민변 회유·압박 의혹’ 수사

법원행정처 관련자 회유·통진당 재판 개입 정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불러 의혹 문건의 구체적 실행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송상교 사무총장 등 현재 민변 집행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른바 ‘민변 대응 전략’ 문건의 실행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를 상대로는 당시 구체적 회유나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상고법원에 비판

적인 목소리를 냈다.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늘어나는 상고심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을 늘리는 대신 상고법원을 도입한다는 법원행정처 계획을 “권위주의적이고 편민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14년 12월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 전략’ 문건에는 이 변호사에 대한 세평과 함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매개로 한 회유·재판개입 의혹도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같은 문건에서 위헌정당 결정 이후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일선 법원의 관련 재판에 통해 민변과 ‘빅딜’을 시도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당시 이 변호사가 참여한 통진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과 함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듬해 1월 소송이 제기되자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를 활용한 민변 등 우군화 전략”을 구상했다.
/연합뉴스

광주교육청 2019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21~22일 DJ센터서

광주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대입 광주 진로진학박람회를 오는 21~22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 한국교육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참여 기관들은 최신 맞춤형 대입 프로

그램과 다양한 진로체험 과정 등 70여 개 행사를 운영한다.

입학사정관들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며 2019학년도 입시 관련 최신 정보도 제공한다.

박람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과 강사 소개 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jinhakexp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순로 기자

jndomin.kr

희망 을 배달하는 신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수 없이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제, 스포츠 등
신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유용한 정보의 힘을 줍니다.

전남도민일보
6124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유동) 소석빌딩 5층
T 062 227 0000 F 062 227 0084 www.jndomin.kr